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을 비우고 사세요



화엄스님(앞줄 가운데 인경 큰 스님)이 범어사 선원장으로 있던 1974년, 범어사 선원의 하안거 결제 기념 사진.

하고 탐내고 집삼내고 어려서 살던 중 생이 그 버릇을 버리고 맑은 마음자리를 향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방만한 버릇을 뚫어서 가만히 앉아서 자기 관찰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를 깊이 참구하며 생활하는 중에 염불이나 화두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일심으로 정진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업식을 녹이고 자유자재한 마음 자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범어사에서 1백2십여명이 같이 공부할 때가 백중 해제후에 6~7명의 스님들이 기장으로 다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 아무집이나 두드려 하

이 그 뜻을 알아 빙그레 웃었던 것과 지나가는 가섭에게 다자탑의 자리 반쪽을 내어 주어 나란히 앉았다는 것과 부처님 입멸로 슬피 우는 가섭에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발을 내밀어 보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뜻을 알지못해 대답이 공백하다보니 선방수좌라고 말할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비참한 심정이었죠. 그 노장은 "결만 멀정했지, 모두들 밤만 축내는 것들이구만" 하고는 벌렁 놀더니 눈을 뜬 채 초를 골며 자더군요. 그 노장이 나에게 준 충격은 너무나 커 새벽에 살짝 빠져나와 철로따라 걸어서 범어사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마음부터 행복 받아야 합니다 학문 교양 지식이 아상과 얽히면 밤낮 시비 분별하니 죽음의 세계죠”

릴 것을 걸모습만 중이지 속마음은 속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 다시 화두를 잡았죠.

“일체전심만 해도 되는데 왜 삼체전심을 했을까” 하는 화두를 계속 참구했지요.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마음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마음은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온 일도 없을 것이고, 살아도 산 바가 없고 죽어도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있을텐데, 도대체 그 마음이 뭔가 하고 간절히 참구하다 잠이들면 잠속에서도 화두가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화두삼매에 들어 있으니 아까 그 귀신이 “이 스님이 어디갔느냐”고 밤새도록 찾아요. 참 희안한 일이지. 화두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힘을 얻게 되었죠. 3, 4년정도 공부를 하다가 범어사에 들어왔지요. 어느 날 새벽종소리가 텅 하는데 마음이 획 돌아가는 느낌이 오더군요. ‘아, 이거 뭔가 되었구나’ 싶어 기장의 그 노장을 찾아갔지요. 바로 전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가부좌를 한 상태로 이불 호청이 덮여져 있

각들이 나고 드는게 전부 생사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꿈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감정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끌고 가는게 아니라 그것들에 휘둘리면서 사는 이상 그것은 아무 보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는 이는 염불하고 참선하는 이는 참선하며 깊은 몽중에라도 성성적(惺惺寂寂) 적적성성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가 제대로 익으면 염불하고 참선하느라고 밤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학문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망상이므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문이니 교양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꿈이며 나를 가리고 있는 장막일 뿐입니다. 그 장막을 벗기고 맑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 칠혹같은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참선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염불을 해서 업장을 녹이고 하는 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중에도 염불이 나오고 몽중에도 화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화두 염불마저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생각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오각성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삼라만상이 내 마음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불(佛)이 되어 가는 것이죠.

부처님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설명한 적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역대 조사가 마음을 전한 바도 없고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간단히 예를 하나 들지요.

어떤 남편이 엿을 먹고 있는데 한번도 엿을 먹어보지 못한 아내가 “여보, 엿맛이 어떨소?” 물었지요. 그 남편이 “맛있고 달콤하오.” 그러고 그 부인은 엿맛을 모르겠거든. 또 물었지. “여보, 엿맛이 어떨소?” 그러자 그 남편 하는말 “물지 말고 직접 먹어 보구로”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엿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물기를 “여보, 엿맛이 어떨소?” 하니 그 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이것이 바로 삼체전심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이 삼체전심의 화두를 풀어 달콤한 엿맛을 보듯이 마음자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나의 경전



59

법구비유경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

불교는 신앙적으로 좋은 종교요, 철학으로도 심오한 진리가 있다 그러나 심오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게 가르치기도 쉽지 않다. 필자는 특히 어린이나 학생, 불교입문자에게 설법을 자주 하는데 간결하고 쉬운 법구경을 많이 인용한다.

필자는 수행포교초기, 어느 큰 스님 법석에서 ‘장자의 네 부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미있고 인상이 깊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것은 <법구비유경>의 한 대목이었다.

그 요지를 보면 어느 장자에게 네 부인이 있었다. 첫째 부인에게는 귀한 옷도 사주고 아끼며 끔찍히 사랑했다. 둘째 부인도 귀중하게 돌보며 사랑했고 셋째는 볼 때는 아끼나 그저 그렇게 지냈는데 넷째 부인에게는 무관심과 냉대로 대했다. 장자가 어느날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면서 네 명

한역 <법구경>의 계승 가운데 3분의 2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것이 설해지게 된 인연과 핵심 교훈을 구체적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한 것이다.

법구경은 법구경의 본말을 확실히 하여서 <법구본말경(法句本末經)> 또는 <법유경(法喻經)>이라고도 한다.

내용의 갖가지 비유적 이야기는 가치 현상적인 인도인의 상상력이 창작해낸 풍부한 비유

담으로 비유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은 전 4권 40품으로 엮여져 있고 각 품마다 한가지 이상 다섯가지나 여섯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다. 이 경은 서기 290~306년에 법가와 법법에 의해 한역되었고 고려대장경 1020에 있으며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신관 20번에 있다.

향을 띤 좋은 이는 한대가 나고 생선을 두었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법구경 배경인연 풀이한 비유 설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답제시”

의 부인들을 각각 만나 동행해 줄 것을 간청했다. 끔찍히 사랑하고 잘해준 첫째 부인이 응당 같이 가겠다고 나설 줄 알았으나 두 부인은 짐승을 하며 같이 못간다고 냉정하게 거절했다. 셋째 부인은 동리밖까지만 따라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자는 우리 넷째 부인은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고 했다. 장자는 평소엔 넷째 부인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소홀히 대한 것을 절실히 후회했다. 여기서 장자는 우리 모든 사람을,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며 첫째 부인은 육체를, 둘째 부인은 재물을, 셋째 부인은 가족이나 친지, 넷째 부인은 마음공부를 비유한 것이다. 평소엔 사람들이 육체를 호사스럽게 다루고 끔찍하게 아끼며 재물을 좋아하지만 결국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은 평소엔 해놓은 마음공부라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는 이야기나 출가수행자가 처와 자식의 연을 끊지 못해 집으로 가려하자 '지붕잇기를 총총히 잘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듯이 뜻을 단속해 그대로 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르침,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부대나 교도소 등에서 설법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들이다. 어린이나 학생 법회 때는 신통력의 비유나 수행자의 비유를 들어 호기심을 일으켜 경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법구비유경>은 설법이나 글을 쓸 때 너무나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혹 우물할 때나 좌절이 생길 때 이 경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어느새 마음이 가분해지고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생겨남을 느낄 것이다.

나를 설법할 때 이 경의 설화를 설명해주고 그 핵심 계승을 대중과 함께 꼭 복창한다. 대중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법구비유경>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마음에 आरो새겨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랑·집착·미움·일체사랑 들고 나는게 생사 그 버릇 버리고 맑은 마음 향하는게 불교”

룻밤 묵고 가게 되었죠. 어느집 문을 두드리니 백발노장이 나오더니 우리를 보자마자 “아이구 대선사들 오셨습니까” 하며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군요. 그 노장은 얼핏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죠. 공양후 모두들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는데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장이 부채질을 하면서 나오더니 “모두들 자는데 여기 눈밝은 수좌가 하나 있는가” 하고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나에게 선방수좌냐고 물길래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 백발노장이 “부처님께서는 삼체전심(三處傳心)을 하셨는데, 일체전심만 해도 될 것을 왜 삼체전심을 했는가?”고 묻는 겁니다. 삼체전심이란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만

그때부터 그 노장이 던진 화두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걸말지고 길을 가다가 상여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어귀마다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상여집에 들어가 좌선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게 되죠. 배가 고프고 부슬부슬 비는 내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자니 잠이 오더군요. 잠속에서 상여집을 지키는 귀신이 말하기를 “귀신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하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 생각하길, ‘내가 저놈을 봐야 하는데 저놈이 나를 보더니, 내가 공부 없으니 저놈이 나를 보는 것이니 큰일났다’ 했어요. 공부를 했다면 내가 무아경에 들어가 귀신이 나를 보지 못하게

군요. 독경을 해드리고 아들에게 덮어놓은 것을 걸어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역시 눈을 뜨고 돌아가셨더군요.

내가 그 시신을 보고 “당신께서 4년전에 나고 죽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금일에 죽으셨어요?” 했더니 손을 들어올리더군요. 내가 또다시 “그러면 그 손이 없었던 무언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했더니 손을 더 높이 올리더군요. 거기서 또 한방 얻어 맞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자재한 것이죠.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발을 내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생사가 본래 없는 겁니다. 생사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 대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사랑 분별, 학문있다, 교양있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 생

뉴코아 백화점 6개점 동시 실시!!! (6월 24일부터 7월 24일 까지)

불교TV 호도상품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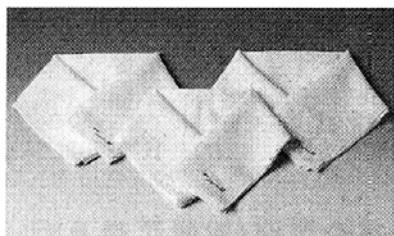
강남신관, 성남 김스클럽, 일산 뉴코아, 수원 인계점, 평촌점, 평택점

bfn 불교텔레비전이 불자님들께 '명품삼베' 보급을 위해 뉴코아백화점에 호도상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극락왕생복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과 마음의 양식까지 구비하였으니 불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예로부터 윤달에는 부모님의 수의를 미리 지어두어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bfn 불교텔레비전이 윤달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호도를 위해 '명품삼베' 제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 드릴 불교문화상품, 불교관련서적, 영상제작물, 우리웃, 사찰전통음식, 불교팬시상품 등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복



•삼베묵수건



•삼베양말



•불교문화상품, 불교관련서적, 영상제작물, 우리웃, 사찰전통음식, 불교팬시상품 등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f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